

마음은 우주의 창조 도구(1부)

| 레스터 레븐슨 | 이영수 '지금여기' 번역위원 옮김 |

'내'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의해 현실은 창조되고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고, 우리의 최종 상태는 창조를 넘어선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편집자 주).



창조

알든 모르든 모든 이는 항상 물질을 통제하고 있다. 자신이 창조를 하는 사람이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는 현실을 창조하는 자이다. 사람이 창조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이는 매일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지 않기 때문에 모를 뿐이다. 모든 생각, 모든 단일한 생각은 물리적 세상 안에서 실현된다. 우리가 생각을 보류하지 않는 한, 실현되지 않을 생각을 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정한 강도의 사고(思考)를 한 후에 반대되는 같은 강도의 것을 생각한다면 중화되는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보류되지 않고 중화되지 않은 사고는 바로, 즉시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항상 현실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며 늘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필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실현의 방향을 잡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현실 창조라고 부르는 것이다.

모든 이가 삶 속에서 가진 것들은 모두 창조된 바이다.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체험 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지닌 사고의 총계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현재 당신을 둘러싼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바를 보라. 그것이 당신이 실제로 구현한 바이다. 당신이 그들을 좋아하면 그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싫다면 생각을 바꾸어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 집중하여 해당물에 대한 사고가 압도적이 되도록 하라. 의식적으로 작은 것들을 실현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감히 큰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작게 실현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10억 달러를 현실에서 창조하는 것이나 1페니를 창조하는 것이나 정확한 규칙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음은

세상에 실현되는 크기를 결정한다. 1달러를 창조하는 사람은 100만 달러를 구현해낼 수 있다. 1달러를 창조하는 방법을 의식해내어 다음에는 그 뒤에 0이 6개 붙는 결과물을 창조하라. 1달러 의식보다는 100만 달러의 의식을 가져라. 이 내용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그간 내가 말해왔던 것과 연관된다. 물질은 마음이 우리가 우주와 세상, 몸이라 부르는 것으로, 마음 바깥으로 투사시킨 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질이 마음으로부터 투사물임을 알면 우리가 창조한 그림에 불과하며 우리는 현실을 쉽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반복하여 말한다 : 모든 이는 생각하는 모든 순간 실현하고 창조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한 창조자이다. 창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마음을 뛰어넘어야 한다. 마음의 배후에는 전지(全知)의 영역이 있으며 거기서는 창조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존재의 상태로 자각이나 존재, 의식이라 호칭하기도 한다. 창조를 초월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은 상상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마음은 주로 창조와 창조행위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주의 창조도구이며 세상 및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유일한 창조자인 마음을 가지고 창조를 초월한 것이 무엇인지 상상하려고 애쓰는 것은 불가능에 귀착한다. 마음은 평화를 절대 모를 것이다. 왜냐하면 고요한 평화를 알기 위하여, 바로 우리자신이기도 한 무한한 존재를 알기 위하여는, 창조를 넘어서서 마음 위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 상태는 창조를 넘어서는 것이다. 궁극의 상태는 불변의 상태이지만 창조에 있어서 만사는 항시 변화한다. 그러므로 궁극의 진리는 창조 안에 있지 않다. 원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단지 그렇게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마음은 창조할 뿐이므로 당신이 원하는

사물을 단지 생각하고 당신이 그것을 향시 얻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라. 쉽지 않은가?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창조하면 “아, 내가 창조한 것을 봐”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원하지 않는 것을 창조했음을 알 때도 당신은 여전히 창조의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현실이나 대상을 원하지 않으면 단지 그것을 뒤집어버려라. 그러면 당신은 좋은 것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단상


- 이 세상 내에서의 모든 행동과 행위는 사랑에 대한 갈망 위에 기를 두고 있다. 이 바람은 승인, 수용, 주목, 힘, 명예, 행운을 추구하게 만든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도달할 수 없으며 우리는 좌절하고 불행해진다. ‘사랑함’에 의해서만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다.
- 세상은 기쁨의 순간들이 있지만 이 순간들 사이에는 더 큰 고통이 자리 잡고 있다.
- 인간은 환경의 희생양이 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었다. 환경을 통제하는 통제자이나 이 사실을 망각하였다. 인간이 자각을 다시 획득할 때 그는 환경의 마스터가 되며 의식적으로 환경을 통제할 것이다.
- 세상은 당신이 당신의 자아를 알 때까지 당신을 매질하고 때릴 것이다.
- 물질, 에너지, 공간, 시간은 마음 안에 있다. 인간이 이를 깨달으면 그는 그들에 대한 정신적 통제를 가지며 의지대로 그들을 통제할 것이다.
-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 세상을 이용하라. 당신이 세상에 집착해 있다는 것과 또 세상에 대한 당신의 혐오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털어버려라.

- 물질에는 지성이 없다. 세상은 단지 물질일 뿐이며 지성은 인간 안에 있다. 그 지성이 세상을 결정한다. 그렇지만 인간은 세상을 무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의식적 통제력을 얻게 될 것이다.
- 세상을 보는 자가 없다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 실재를 인지하면, 지배력을 얻는다.
- 자각을 통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존재만이 경계와 불행을 창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만물을 즐길 수 있다.
- 창조는 마음의 투사이다. 실재는 그 뒤에 있다!
- 실재를 본다고 세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사라질 뿐이다!
- 세상은 한계만이 존재하는 학교이다. ‘한계’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한계가 없게 될 때까지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 세상 속의 삶은 불행을 필요로 한다. 세상은 한계의 왕국이기 때문이다. 세상 속에 존재하라. 그러나 세상의 소유가 되지는 말라.
-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라보며 홀로 견뎌낼 수 없는 자는 오락을 구한다. 오락은 도피이며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달아나는 것이다. 행복은 오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랑을 통해 행복해져라. 더 많이 사랑할수록 그에게 오락은 점점 더 필요 없게 된다.
- 사교생활은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은 오직 고요 속으로 침잠해 들어갈 때만 발견된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다. 진실 또는 실재를 이해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 세상을 돕길 원하는가? 스스로를 도와라. 그럴 때 당신은 세상을 돕는 것이다. 자신을 알지 않고서는 다른 이들을 볼 수 없다.
- 우리가 세상에 준 것은 세상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보상(카르마)의 법칙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지만, 극소수의 사람만이 카르마는 행위보다 생각 속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 우리가 좋고 행복한 삶을 원하면, 좋고 행복한 생각만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누군가를 험담하면 그것이 상대방을 해치지 않고 보상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해칠 뿐이다. 험담은 다른 이를 비방하기 때문에 증오의 한 형태이다.
-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예고는 신을 흉내 내어 연기하고 있다.
- 우리가 옳거나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이다.
- 어떤 것에 대항하여 하는 생각은 판단이다.
- 해롭지 않음과 상호의존은 항상 사람을 정확한 행동으로 이끈다.
- 옳거나 틀린 것, 선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재를 배우기 위한 체험만이 존재할 뿐이다.
- 당신이 만족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를 그대 자신으로 여김으로써만 가능하다.
- 우리가 진실로 바라는 것(향구적이고 한계 없는 기쁨)이 사교활동과 오락에는 존재하지 않기에 그것은 시간낭비이다.
- 명상과 이타적 봉사로 사용된 시간은 가장 유익한 시간이다. 그것은 무한한 기쁨으로 이끈다.
- 진정한 자아가 아닌 것을 추구하느라 낭비된 순간들이 참자아를

찾는 데 사용된다면, 깨달음은 곧 뒤따라올 것이다.

- 일과 행동은 깨달음으로 갈 때 장애물이 될 필요가 없다. 자아에 대한 추구는 항상 지속될 수 있다. 집착 없이 일하거나 행위하고 행위자가 아니라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단지 목격자가 되어라. 그러면 명상은 지속될 수 있으며 일상 속에서도 명상은 한결같은 것이다.
- 밤에 꾸는 꿈은 이 세상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 악몽 속의 고통은 꿈꾸는 동안 실재적이다. 창조된 전체 세상과 그것의 속성들,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한 부분,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는 실재로 보인다. 꿈 속 세상에서 깨어났을 때 전혀 그것이 실재가 아님을 알게 되며, 모두 주관적인 것임을 알게 된다. 유사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전혀 실재가 아니며 주관적이라고 말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배후에 있는 단일한 본질인 실재를 알게 된다.

우리가 대낮의 깨어있는 상태라 부르는 한계 상태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한계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부터 깨어남이 사람을 한계 없는 자아로 일깨우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The Ultimate Truth'에서 발췌했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레스터 레븐슨(Lester Levenson) | 1910-1994, 흘러보내기 기법(Release technique 혹은 세도나 메서드) 창시자. 물리학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1952년 42세의 나이에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내면으로 침잠해 들어가 확고한 의지와 집중력으로 자신의 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모든 내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방법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인 지고지순한 평화, 행복, 자유를 발견했다.

역자 | 이영수 | 지금여기 번역위원